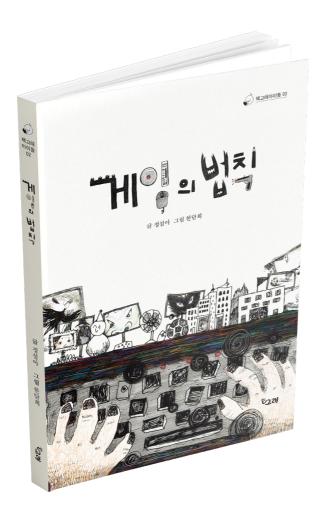
초등 5~6학년



게임의 법칙

글 정설아 / 그림 한담희

책 읽기는 '놀이' 다

'독서'와 '책 읽기', 이 두 단어에서 오는 무게감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독서 할까?"라는 말보다는 "책 읽을까?"라는 말이 더 정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각자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서'는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든다. 독서 일기, 독서 목록……. 의무감과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다. 반면 '책 읽기'는 가벼운 느낌이 든다. '꼭 읽어야 해!'가 아니라 '한번 읽어 볼래?' 하는 마음의 자유로움이 강조된다.

여기에 '함께' 라는 단어를 붙여 보자. 자유롭게 '함께 책을 읽어보는 것'이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시행 이유일 것이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한 권'이라는 양의 의미가 아닌 '읽기'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읽기 행위를 통해 재미를 느끼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책 읽기는 다양한 방법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고래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책을 읽을까?' 를 연구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도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책 읽기'는 곧 '놀이'다. 놀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작가, 등장인물, 선생님,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 간다. 그래서 책 읽기는 단순히 독해력 향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마음을 읽어가는 소통의 좋은 방법이다.

학년, 중학년의 책 읽기는 재미와 경험의 다양성이 함께 해야 한다. 책 내용과 비슷한 경험 활동을 해 봄으로써 책과 일상생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학년의 책 읽기는 공감을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타인'을 통해 '나'를 보고, '나의 생각'이 '타인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 가는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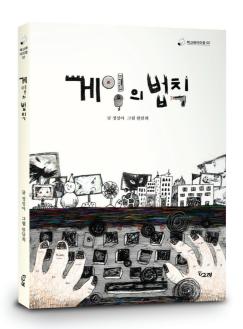
무엇보다 요즘 행해지고 있는 '온작품 읽기'는 작품을 온전히 다 읽어 봄으로써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책 속의 다양한 길을 혼자도 걸어 보고, 함께 걸어보면서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혀 가다 보면 읽기의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 즐거움의 길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도안'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심중수(어린이책 작가, 한국어 강사)

게임의 법칙

글: 정설아 / 그림: 한담희





☆ 학년군 5, 6학년 중심 국어

[독서 단원] 경험을 살려 작품 감상하기

-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이야기를 읽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어 본다.
-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힌다.

☆ 책소개

《게임의 법칙》은 게임 중독, 가정 폭력, 학교 내 괴롭힘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 지호가 게임에 빠져들고 헤어 나오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또래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한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오가는 구성은 게임 세계와 현실을 혼동하는 아이들에게 위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게임의 법칙》은 이제 게임 중독이나 폭력이 '타인'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임을 보여 준다.

학습 목표

《게임의 법칙》은 우연히 게임에 빠진 아이가 겪는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 감춰진 폭력의 위험성과 잔인함을 인지하면서도 중독되어 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경험과 주인공 지호의 모습을 대비해 보면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읽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과 폭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게임 중독과 폭력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 제목과 연관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 2. 인물의 처지에 대해 상상해 보고, 그 상황에 대해 이해한다.
- 3. 인물의 겪은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대비해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 4. 가족의 소중함과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독전 활동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책 그림과 제목 살펴보기

- 이 책의 제목인 '게임의 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 앞, 뒤표지를 살펴보고 작품의 배경, 등장인물의 표정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 작품 속 삽화를 살펴보고. 소제목과 연관지어 줄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 책 관련 상황 이해하기

-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게임의 규칙과 재미에 대해서 느껴 보도록 합니다. (예시 : 보드게임, 손병호 게임, 3음절 게임 등)
-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이며, 그 게임이 왜 좋은지 말해 봅니다.
- 갑자기 가족들이 사라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이야기해 봅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이야기 속에는 외모를 빗대거나 행동을 놀리는 별명이 꽤 등장합니다. 선생님, 주인공 지호, 구기훈의 별명은 무엇이었나요?
 - : 대머리독수리(선생님), 땅콩(지호), 고릴라(구기훈)
- ▶ 지호의 마음을 대변하는 분신으로, 신호등에서 마주한 유독 얼굴이 하얀 남자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 킹

- ▶ 지호의 아빠는 알코올중독자가 되면서 가정 폭력을 일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 : 중소기업 전자제품을 파는 지호 아빠의 가게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생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 ▶ 지호는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게임 속에서 하나, 둘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게임 속 모니터에 갇히고 맙니다. 지호는 이 게임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났나요?
 - : 게임 속 자신의 행동이 현실 속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행동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한 킹을 용기 있게 총으로 쏨으로써 벗어날 수 있었다.
- ▶ 이 작품의 제목인 '게임의 법칙'을 통해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 : 게임의 법칙은 처음에 지호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맞기 싫으면 먼저 때리면 되는 것, 즉 이기 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 지호의 행동을 보면서 게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게임의 법칙이라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



▶ 자신의 분신 만들기

- 자신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분신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니다.
- 자신의 분신을 그림으로 그려 보고. 이름을 지어 줍니다.
- 분신이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왜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니다.

▶ 현실과 가상, 헷갈린다 헷갈려!

- •세상이 게임 속 세상처럼 변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이야기해 봅니다.
- 가상과 현실을 혼동함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이 무엇일지 예시를 찾아보고 조사해 봅니다.
- 스마트 폰과 게임 중독에 대한 자신, 혹은 친구의 경험을 말해 봅니다.
- 게임 중독의 원인과 게임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해 봅니다.

(참고 영상: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2 - 게임 중독 학생의 고백〉 / EBS 지식채널e 〈청소년 게임 중독〉)

▶ 폭력! 저리 가!

- 〈따돌림받는 아이〉, 〈내 마음이 들리니?(샌드아트)〉 영상을 보여 줍니다.
-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눠 봅니다.
-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했던 지호에게 편지를 써 보고, 지호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 폭력에 대한 개념과 폭력의 예방 방법을 이야기 나눠 봅니다.

▶ 나는야 게임의 창시자!

-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의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 게임을 만들고 싶은 이유와 그 게임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에게 말해 봅니다.
- 게임의 구성과 규칙을 정해 보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게임을 해 봅니다.

▶ 가족의 향기 느끼기

- 함께 생활하던 가족들이 사라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해 봅니다.
- 가족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그림이나 시로 표현해 봅니다.
- 친구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 봅니다.
- 가족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물하고, 마음을 전해 봅니다.



	독서노트	
책 제목	지은이	
읽은 시기		
줄거리		
기억에 남는	한줄	
감상		

	독서노트	
책 제목	지은이	
읽은 시기		
줄거리		
기억에 남는	한줄	
감상		



책고래는 아이들을 위해 글 씨앗, 그림 씨앗을 정성껏 뿌려 함께 기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함께 기다립니다.

